



2025 BETHEL THEME

여전하 Jesus ALONE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한복음 14장 6절)

베델교회 Bethel Church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www.bkc.org ♦ bethel@bkc.org

Tel: 949.854.4010 ♦ Helpdesk(Text-only): 949-229-1181

교회학교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영아부(0-1.5세) / 본당 1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1.5-3세) / 본당 2층 유아부실
9:00AM, 11:00AM
- 유치부(3세-PreK) / 할렐루야채플
9:00AM, 11:00AM
- K-1(킨더가든-1학년) / 임마누엘채플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유년부실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HS) / 비전채플, 찬양채플
9:00AM(찬양채플),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HS) / 비전채플, 찬양채플
9:00AM(비전채플), 11:00AM(찬양채플)
- 한어중고등부(CIM) / 살롬채플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조이채플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체육관, 온라인
9:00AM, 11:00A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1:15P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3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6시 45분 · 목요일/오후 12시 30분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Presider 예배 인도자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Altogether 다같이
-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빈들에 마른풀 같이(찬172/새183장)
- 기도 Prayer..... Altogether 다같이
1부/안지호 집사 2부/박세환 장로 3부/정낙성 집사 4부/권다영
-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이 기쁜 소식을(진선미 작곡)
-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 유아 세례식 Infant Baptism..... Altogether 다같이
2부/윤하민(Asher) 3부/손선우(Isaac)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부/골로새서(Col.) 3:5-9..... Altogether 다같이
4부/느헤미야(Neh.) 10:1-31

말씀 Message 1, 2, 3부.....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Supreme Jesus(15) 죄 보다 더 재미있는 것

4부..... Rev. Solomon Kang 강솔로몬 목사

Do It Again(32): 저주로 맹세한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

- 적용찬양 Song of Response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약할 때 강함되시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찬/새86장)
-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Dedication and Closing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여전히 Jesus Alone

*축도 Benediction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말씀이 들리는 복

Blessings from Hearing the Word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백문(百聞)이 불여일견(不如一見)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들어도 한 번 보는 것만큼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라디오로 백번 듣는 것보다 TV로 한번 보는 것이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전화도 화상전화를 합니다. 셀폰도 전화라기 보다는 눈으로 보는 컴퓨터로 바뀐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책이나 신문도 이제는 영상뉴스로 대신하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디지털에 지친 현대인은 아날로그로 돌아가는 몸부림을 치곤 합니다. 요즘 일부러 셀폰을 두고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우리도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복잡한 세상을 떠나 자연으로 들어 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소위 TMI(too much information)로 폭탄을 맞은 듯한 총혈된 상황에서 잠시라도 눈을 감고 숲이 우거진 산 속에서 쉬고 싶을 때 조용히 들리는 음성이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마 17:5) 성경은 '들으라' 말씀합니다. 믿음을 갖는 방법도 어쩌면 '보라'가 아니라, '들으라'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롬 10:17)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롬 10:10) 말씀합니다. 그래서 때론 눈을 감고 귀를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계 3:22) 의외로 성경은 먼저 들을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여, 믿지 못하겠다고 했을 때, 부활의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네 손을 네 옆구리에 넣어보라" 하십니다. 그때 도마는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니이다" 고백합니다.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은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요 20:29)입니다. 요즘 말씀이 들리시나요? 혹시 여기저기서 여러분의 시야를 혼잡하게 하는 TMI로 은혜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분은 안 계신가요? 주일 설교 말씀이나, 예배 시간에 관심이 없으면 눈을 감고 귀를 열어야 할 때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고후 5:7)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고후 4:18)

눈을 감읍시다. 귀를 쫓긋 여십시오. 주의 말씀이 들려야 다시 믿음으로 설 수 있습니다. 옛날에 들렸던 경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들리는 말씀으로 우리는 삽니다. 기도의 눈을 감으면, 주의 말씀이 들립니다.

There is a saying that seeing once is better than hearing a hundred times. It means that no matter how many times you hear it, you'll know more by just seeing it. You could say that it's better to see it once on TV than to hear it a hundred times on radio. Nowadays we do Facetime on our phones. You could say that our cell phones have changed to computers that we see, not just as a phone. It's a trend to replace books and newspapers with online news. However, modern day people, who are tired of digital culture, sometimes struggles with desire to go back to analog. I often hear that people leave their phones behind when going on a vacation. There are times when we want to leave behind this world that is chaotic with computer and internet and go back to nature. We have been bombarded with TMI (too much information). We are in a congested state. When we have a desire, even for a moment, to close our eyes and rest amid deeply wooded forest, there is a quiet voice. "This is my beloved Son, with whom I am well pleased; listen to him." (Mat 17:5) The Bible says, 'Listen.' In other words, to obtain faith is from 'listening', not 'seeing.' The Bible says, "Faith comes from hearing" (Ro 10:17) "For with the heart one believes and is justified, and with the mouth one confesses and is saved" (Ro. 10:10). Therefore, it's important to sometimes to close our eyes and to open our ears. "He who has an ear, let him hear what the Spirit says to the churches." (Rev 3:22) Surprisingly, the Bible emphasizes listening first.

When Jesus' disciple Thomas said he didn't believe because he hasn't seen the resurrected Jesus, the resurrected Jesus appeared before him. He said, "put out your hand, and place it in my side." Then Thomas confesses, "My Lord and my God." Then Jesus said to him, "Have you believed because you have seen me? Blessed are those who have not seen and yet have believed." (Jo 20:29) Do you hear the Word lately? Are there any of you who can't hear the Word of Grace because of TMI that clutters your vision? If you were not interested in Sunday sermons or worship, then it's time that you close your eyes and open your ears. "For we walk by faith, not by sight." (2 Co 5:7) "As we look not to the things that are seen but to the things that are unseen. For the things that are seen are transient, but the things that are unseen are eternal." (2 Co 4:18)

Close your eyes. Open your ears. You need to hear God's Word to stand firm on faith. We live by God's Word we hear today, not by what we heard in the past. When you close your eyes to pray, you hear God's Word.

주일 설교 시리즈: 골로새서 강해 (15)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한요 목사

Supreme Jesus!

죄 보다 더 재미있는 것

(골 3:5-9)

1. 요즘 가장 재미를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적용하기



2. 지난 주 설교는 "위에 것을 찾으라"였습니다. 오늘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무엇을 죽이라 하는지 크게 네 가지를 적어 보시고, 주님의 산상설교 내용에서 죄를 다루는 자세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5절, 참고/마 5:29)

3. 성적(性的)인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요셉에 배운다면 무엇일까요?(참고/ 창39:6, 10-12)

4. 또 하나 죽여야 할 죄는 '말의 죄'입니다. 그 종류를 다양하게 열거하고 있습니다.(8-9절) 이 죄를 이기는 방법은 벗어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입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참고 구절을 읽으시고, 그 지혜를 같이 나눕시다.(참고/잠 26:18-22, 엡 4:25-29, 마 13:44)

5. 가장 재미있는 것 "all in all"이 무엇입니까?(11절) 주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행복과 재미를 나눠 봅시다.

■ 적용찬양: 약할 때 강함되시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찬/새86장)

사역 소개

1부 예배

주일 가장 신선한 말씀의 예배



1부 예배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낮아짐과 감사함의 마음으로 섬기는 귀한 사역팀입니다. 예배 시작 한 시간 전에 미리 모여 본당을 깨끗이 청소하고, 주보를 정리하며, 강대상과 성찬대, 조명과 마이크까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점검하고 준비합니다. 이후 서동민 예배 담당 목사님과 짧은 미팅을 통해 마음을 모은 뒤, 'Jesus Alone'이라는 힘찬 구호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총총걸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성도님들을 따뜻한 미소로 맞이하며, 예배 중에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예배 후에는 성도님들이 두고 가신 물건을 정리·보관하고, 2부 예배를 위한 세심한 뒷정리까지 섬김의 손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처럼 1부 예배팀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그러나 정성스럽게 예배의 분위기를 만들어 갑니다.

주일 오전 7시에 드러지는 1부 예배는 주일 하루를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이른 아침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믿음의 어르신 성도님들과 하루를 부지런히 시작하는 젊은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통해 세대 간의 아름다운 조화를 볼 수 있습니다. 은혜로운 베델 콰이어의 깊이 있는 찬양으로 주일 예배의 문을 열고, 전통적인 예배 형식을 따르면서도 딱딱하지 않고, 오히려 경건하면서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드러집니다. 무엇보다도 주일의 첫 설교가 전해지는 자리인 만큼, 가장 신선한 하나님의 말

씀을 처음으로 접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됩니다.

이른 예배 시간이지만 늦지 않게, 환하게 웃는 얼굴로 힘차게 나오시는 믿음의 선배님들을 뵈뵈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제가 바라는 미래의 믿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에 새벽 일찍부터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뵈뵈면 큰 은혜가 됩니다. 다음 세대의 예배에서도 1부 성도님들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모습이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1부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동행하는 은혜와 건강의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양수 집사

사역 소개

예향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 '예향'



눈을 들고 마음을 열어 주위를 돌아보면 작은 신음 소리조차 힘겨운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 감사의 고백이 떠나지 않음은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저희 예향 팀은 교회가 잠시 쉬어가는 월요일임에도 바람을 가르며 주방으로 달려와 음식을 만들고, 그 음식을 전하러 달려갑니다.



예향은 '예수님의 향기'라는 뜻입니다. 저희는 여성 암 환우분들과 가족분들을 위한 사역으로 베델교회를 다니지 않으셔도 주저하지 않고 달려갑니다. 엄마, 아내, 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다 뜻하지 않은 고난을 마주한 '암'이라는 진단 앞에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기도 하며 시작한 사역이 십 년이 되어 갑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전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을 모르던 분들이 음식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복음을 알게 되고 영접하는 순간이 저희들에게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살아있는 사랑이 흘러가야 함을 느끼고, 복음이 또 다른 생명으로 열매 맺어야 함을 예향을 통하여 깊이 깨닫습니다. 예향을 통하여 우리의 약함이 자량이 되게 하시

고 겸손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박성권 목사님과 30 여명의 봉사자들이 섬기는 예향은 음식으로 섬기는 손길들과 환우들의 집으로 음식을 배달 하는 발걸음으로 섬기시기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우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하기를 기다립니다.

'예향' 이곳이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그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자리입니다. 오늘도 겸손히 우리 주위의 아픈 암 환우분들을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그 기도가 향기가 되어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김유미 권사

신앙 상담(1)

주님, 진짜 내 마음은 뭔가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첫 사람 아담의 범죄, 곧 원죄로 인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정결하고 선한 인간의 마음은 타락한 후 점점 더 절망적으로 부패하고 사악해졌습니다. 이런 인간의 형편을 성경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렘 17:9)고 말씀합니다.

원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쉽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게 됩니다. 특히 어린 시기에 상처를 많이 받게 되면, 그로 인해 생기는 결과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평생 문제를 안고 갈등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대체로 어릴 때 깊은 상처를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축제 같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 상처들이 떠오를 때면 순식간에 블랙홀과 같은 어둠의 포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 저 높이 비상하다가도, 과거에 억울하게 분노했던 감정이 번개처럼 되살아나면 금세 받은 은혜는 사라지고 혼란과 무기력의 나락으로 추락하곤 합니다. 그 이유는 과거의 마음의 상처로 인해 생겨난 '쓴 뿌리' 때문입니다.

쓴 뿌리는 '과거의 상처나 원한의 감정'을 말합니다. 억울한 감정을 해소하지 못한 채, 과거에 받은 상처로 인해 분노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쓴 뿌리를 갖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수치심, 거절감, 억압당함, 버림받음, 열등감, 피해의식, 외로움, 슬픔, 두려움, 불안, 좌절감, 낙심, 죄책감 등이 모두 쓴 뿌리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 그 쓴 뿌리가 해결되고 처리된 줄 알지만, 사실은 다만 잊혀진 것이었고 가라앉은 것

뿐임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마음의 상처와 아픔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거듭나거나 성령 충만할 때 치유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본적으로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꾸준하고 지속적인 용서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특히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 점진적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그 결과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변모해 가는 것입니다.

황성철 목사



사역 간증
울림

오직 예수와 여자만 남았더라



오래 전 학생 때, 보스턴에서 대학원 입학허가서를 받고 그해 여름에 교회 청년들과 함께 중국 선교를 마치고, 한국에 잠시 들려 건강검진을 받다가 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기적을 바라는 마음으로 치유 집회를 쫓아다니고 금요철야에서 밤을 새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학교 입학을 미루고 수술을 받고 항암을 시작하고 세상과 단절된 시간을 보내며 혼자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한 여인을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돌을 든 사람들을 물리치시는 장면에서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라는 한 문장을 읽는데 눈물

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오랜 시간 동안 아무 응답이 없었던 예수님이 "네가 세상에서 잊혀지고 버려진 게 아니라 오직 너와 함께 하고 싶어서 네가 속한 세상을 멈춘거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던 오빠는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고, 아빠는 평생 피우시던 담배를 끊고 주기도문을 매일 손으로 쓰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시작하시고, 잠 못 이루며 아파했던 저에게는 엄마의 기도로 평안이 임했습니다. 비록 저에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저의 의지와 힘을 전혀 쓸 수 없는 상황에서 만난 그 하나님은 저를 예수님 앞에 서 있는 한 존재로 만나주시고 이렇게 저희 가족을 만져 주셨습니다.

'울림'에서 큐티를 통해 예레미아서를 다시 묵상하며 예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숨겨진 하나님의 깊은 뜻과 마음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사랑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모든 영광과 권리를 박탈하면서까지 속해있던 땅에

서 포로로 내어쫓기게 하시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의 돌들을 막아 선 시간이었고 오직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존재로서 거룩으로 씻겨지는 시간이었음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한 학기동안 울림예배에서 지나간 삶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깨달아지는 시간이었고 소그룹과 말씀과 삶을 나누면서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쟁을 이끌어 가고 계심을 보며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모든 길을 함께 걸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합니다

정진희 집사



사역 후기
기도학교

귀한 만남과 은혜의 시간

기도에 대한 배움과 나눔, 중보, 열정 등 여러 가지 기대와 설렘으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분들과 마음이 잘 맞을까 하는 작은 염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팀원으로 묶어주신 멤버들은 처음 만난 분들이 있었음에도 어색함 없이 하나님 안에서 바로 친근해지며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미국과 대한민국을 위해, 세상의 전쟁, 기근, 재난,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대해, 우리 베델교회를 위해, 아픈 분들을 위해, 가정들이 하나님의 기초위에 바로 세워지길 또한 차세대 자녀들을 위해, 이웃을 위해 평상시 기도의 범주를 넘어서 눈물로 통성으로 한마음으로 함께 울부짖으며 나아간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각자의 개인 기도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며 조원들의 기도는 나의 기도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보를 열납하여 주시길 바라고 또 바라며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매주 서적의 중요 내용을 읽고 각자의 생각을 나누며 기도란 무엇인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

는가? 하나님의 응답 등 기도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과 마음가짐을 정리하며 되새기게 도와주었습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임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박혜성 권사

우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모여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었던 기도학교는 제게 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바쁜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교제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평소 마음속에 품고 있던 신앙의 질문들을 나누고, 권사님들과 집사님의 인도 아래 말씀 안에서 그 해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참 따뜻하고 귀했습니다. 무엇보다 기도하는 동안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확신이 들었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거라

는 믿음이 마음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함께해 주신 조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조원들의 진심 어린 기도와 나눔은 제게 큰 위로와 도전이 되었고, 믿음 안에서 더 단단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귀한 만남과 은혜의 여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이 공동체와 함께 기도했었던 시간을 통해 주님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맞이할 때 일을 기대하며 크리스찬으로써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백승현 집사



교회학교
C2C

댄스로 하나님께 영광을!



After doing C2C("Call to Chris" hip-hop dance group) for 2 seasons, I genuinely got closer to God. I realized that I cannot only worship Him through praise songs, but I can use the gift of dance that He has given us to glorify Him. Also, C2C is a great opportunity to build relationships with fellow Christians and have fun together while worshipping. Using our gifts together to perform and be one as a team is a blessing.

Even if you are not great at dancing, I encourage you to join C2C, as it will definitely help you grow your faith and fellowship within the church. Praise the Lord for this amazing team, and thank

you T. Daniel for patiently teaching us!
Sean Yun(6학년)



C2C에 처음 들어갈 때 걱정이 많았습니다. 춤도 잘 못 추는데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괜히 민폐가 되진 않을까 걱정되었고, 시작하기 전까지 "하지 말까?" 하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 걱정과는 달랐습니다. 선생님은 저를 따뜻하게 반겨 주셨고, 제 긴장도 금방 풀렸습니다. 아는 친구가 없어서 적응하기 힘들 것 같았지만, 함께 연습하면서 친구들과도 금세 친해졌고, 공동체처럼 하나 되어가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C2C는 단순히 춤을 배우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Call 2 Christ 크리스천 청소년 힙합 댄스'라는 이름처럼, 하나님을 위해 춤을 드리는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연습은 힘들었지만, 그만큼 제 안의 마음도 바뀌어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도전이 되기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6개월이 지나고 학기의 끝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빨리 지나간 것이 아쉽고, 다음 학기에도 꼭 다시 참여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자로 살고 싶습니다.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조주연(8학년)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기획/행정: 주성필 목사
 총성/훈련/BCA: 정승락 목사
 소망/선교: 이충경 목사
 기쁨/찬양/전도: 박정철 목사
 Joy/화평/성감: 박성권 목사
 사랑/QT: 조태현 목사
 은혜/예배: 서동민 목사
 믿음/공동체: 조동현 목사
 온유/말씀/QTin: 배홍수 목사
 BGC 담임: Dan Nam 목사
 BGC(College/Worship): Peter Lee 목사
 BGC(Young Adult): Daniel Yoon 전도사
 일본어/수요예배/기도: 손용주 목사
 예살채플(총괄): 강솔로몬 목사
 예살채플: 공병주 전도사
 예살채플: 이형석 전도사
 예살채플: 최요셉 인턴 전도사
 영어고등부: 김한나(Hanna) 전도사
 영어고등부: 최소영(Kristin) 전도사
 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목사
 영어중등부: 이지원(Cindy) 전도사
 한어중등부: 이성우 목사
 초등부: 이경연 전도사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K-1: 정가영(April) 전도사
 유치부: 정티나 목사
 영아부/아기학교: 최미정 전도사
 소망부: 김재은 전도사
 Beyond the Blue: 이란해 전도사
 병원심방: 김현일 협동목사
 상담: 황성철 협동목사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베델 파이어 및 찬양팀◎

지휘자: 김형직 목사
 솔리스트: 최정원
 뮤직디렉터: 정봉화
 반주자: 한현미, 박정연
 예살 워십: 조요셉

◎교회 직원 및 간사◎

사무장: 조주은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사무실: 인현미
 재정실: 이수민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방송실: 민운기, 김앤드류(인턴)
 목회지원/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컨텐츠 디렉터: 최종형
 음향: 강창위, 한 진
 디자인: 박선경
 웹/IT: 김정아
 수양관: 오춘란

사역광고

상담사역

작년 1월 25일에 첫 상담을 시작한 이후, 많은 교인을 돌보며, 어떤 분은 신앙 문제를, 어떤 분은 부부 간의 문제와 자녀 문제를, 또 어떤 분은 진로 문제 등 다양한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로 성실하게 상담해 드렸으며, 기도로 계속 도와드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는 내면에 각양각색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때로는 그 상처가 감당할 수 없을 때, 도움의 손길을 찾게 됩니다.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대부분 눈물을 보이시며, 때로는 저 역시 함께 감정이입(empathy)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등을 통해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 만남에서 자신도 모르게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심지어는 눈빛 하나가 상처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처들이 치유되지 못하고 오래 지속되면 결국 마음에 깊은 응어리로 남아 일상생활에서 활력을 잃고, 신앙 생활에서는 감사가 사라지게 합니다. 설교를 듣고 기도하며 성경을 읽어도 마음의 답답함이 가시지 않습니다. 교회 상담실은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해 준비된 은혜의 자리입니다.

▶ 상담 시간: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3시까지
 (형편에 따라 요일과 시간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상담 장소: 카페 VIP실

▶ 신청: 교회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 작성 또는 QR 코드로 온라인 신청

▶ 문의: 박성권 목사 (718) 490-9931, davidpark@bkc.org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6월)	6/15: ①부-박종민	②부-박재문	③부-주용중	④부-한미령
	6/22: ①부-박원규	②부-선상균	③부-송석원	④부-김영광
	6/29: ①부-송기평	②부-왕동원	③부-조광중	④부-김은영

헵시바 토요일 새벽 대표기도(6,7월)	6/14: 현승원	6/21: 강영범	6/21: 강재형	7/5: 황수목
강단꽃(6월)	6/8: 송상희, 이상준	6/15: 김중현	6/22: 이상노	6/29: 조 궁

[의무실 (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김혜수(가정의학과), 간호사-주경아

다음주 | 의사-장원호(족부과), 간호사-박수잔

선교후원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옥, 김진영(김은경), 장주원(장한나), 이희숙,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Reza BAM | 서형렬(서정희)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 유요한(유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삭(정인나)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경(양선) 브라질 | 브레노(에스더)

온두라스 | 이동철(이수민)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김인성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창의적접근지역 | 김예평(김진명), 이상훈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어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MMMA, GP미주본부, AU&W,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푸른초장의 집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TS, CGN TV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 **오이코스 예배 및 엘리사 새벽기도회** 모든 성도와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합니다. 주중에는 사랑 목장 중심으로 엘리사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엘리사 새벽기도회 일시/장소: 6월 10일(화)~13일(금) 오전 5시 30분, 본당
엘리사 새벽기도회 대상 및 OICOS 예배 특송: 사랑목장(담당 조태현 목사)
OICOS 예배 일시/장소: 6월 14일(토) 오전 6시, 본당

◆ **베델 차세대 크리스천 리더 장학생 특별헌금** 차세대 크리스천 리더를 위한 장학특별헌금을 부탁드립니다. 베델의 후원을 받아 용기와 힘을 얻은 우리의 다음세대가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로 성장하기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베델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헌금 시 '장학헌금'으로 체크 혹은 노트해 주시면 됩니다.
문의: 행정사무실 (949)854-4010

◆ **수요저녁예배**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과 뜨거운 찬양으로 한주의 중심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성도님을 초대합니다.

일시/말씀: 6월 4일, 저녁 7시 30분, 박경철 목사
문의: 김종학 집사 (949)285-9408

*QR코드를 스캔해서서 함께 부를 찬양을 미리 만나세요!



◆ **교회학교 VBS(여름성경학교) 안내** VBS는 우리의 자녀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즐거운 활동을 통해 친구들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아래의 중요한 일정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K-5 VBS) 일정: 6월 10일(화)~14일(토)

- 체크인 시간 및 장소: 오전 9시 30분, 코트야드

- 픽업 시간: 6월 10(화)~13일(금) 오후 3시, 6월 14일(토) 오후 2시 30분

(영유아유치 VBS) 일정: 6월 17일(화)~20일(금)

- 체크인 시간 및 장소: 오전 9시 30분, 유년부실

◆ **영어중고등부(BYM) Harvest Crusade 신청** Chris Tomlin, Kari Jobe & Brooke Ligertwood가 찬양을 인도하는 부흥집회에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일시/장소: 7월 19일(토) 오후 3시~10시, 체육관(Drop-off & Pick-up)



◆ **소망부 VBS 봉사자 모집** 올 여름 소망부 VBS 를 섬겨주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일시: 7월 22일(화)~25일(금) 오전 9시~오후 3시

문의: 김재은 전도사 (949)923-7094, 최 신 권사 (949)331-5169



Bethel Announcements

◆ **BYM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등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름, 새로운 변화의 시작 BYM 중고등부 연합 여름 수련회 'Cross Country'에 초대합니다. 예배, 말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기대합니다.

일정: 8월 4일(월)~7일(목)

장소: Campus by the Sea(Catalina Island)

회비/등록 마감: \$300(형제자매 할인 없음), 6월 8일(토)



<고등부>



<중등부>

◆ **BYM 8th Outing 신청** BYM 중등부에서 8학년 졸업 아웃팅을 Knott's Berry Farm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이제 곧 중등부를 졸업하는 우리 8학년 학생이 중등부에서 마지막으로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자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일시/회비: 6월 23일(월) 오전 10시~오후 8시, \$48

장소: 체육관(Drop-off & Pick-up)

문의: 이지원(Cindy) 전도사 (213)3355-9049



◆ **T국 한국문화원 개원을 위한 기부** 장과장 선교사 사역지인 T국에 개원하는 한국문화원 개원식에 필요한 물품 기부를 부탁드립니다.

일시/장소: 6월 8일(주일) 1~3부, 코트야드 부스

필요 물품: 문화원 K-Food 행사를 위한 식자재(부스에서 리스트 확인), 한복, 한국놀이 소품(제기, 공기놀이, 달고나 등), 참전용사회 선물(코스트코 50+ 멀티비타민 10개) 등

◆ **교역자 동정** 교회학교/영어중등부(BYM Jr.)를 섬기고 있는 현호승 전도사가 6월 1일(주일)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 **축하해 주세요**

- 오늘(8일) 2부 예배에 윤태경/정지숙 집사의 아들 윤하민(Asher)과 3부 예배에 손요셉/김미래 성도의 아들 손선우(Isaac)의 유아세례식이 있습니다.

- 김동균 집사/김지혜 권사의 딸 김유리(Rachel)양과 Daniel Kurniawan군의 결혼식이 6월 9일(월)에 있습니다.

◆ **위로해 주세요**

-故 엄기종 님(엄대석 집사의 부친, 이지에 집사의 시부)께서 6월 2일(월),
-故 이정옥 권사님(안경수 집사의 모친, 황리나 권사의 시모)께서 6월 3일(화),
-故 김진희 권사님(윤은섭 집사의 모친, 허수정 집사의 시모)께서 6월 4일(수)에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교회학교 주중 모임 안내

■ AWANA(어와나):

- Sparks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K~2학년)
- Truth&Training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3~5학년)

■ 중,고등부:

- BYM(영어중고등부) /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비전채플
- CIM(한어중고등부) /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살롬채플

■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시 30분, 한국학교 각 교실

■ 아가학교: 수요일(15~48개월) 오전 9시 45분, 할렐루야채플

주중 예배 및 기도모임 안내

■ 주중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시 30분, 본당

■ 헬시바 새벽기도회(토): 오전 6시, 본당/온라인

■ 베델 수요저녁예배: 오후 7시 30분, 본당

■ 예수금요일예배(청년): 오후 7시 30분, 임마누엘채플

■ 주일 레위기기도 모임: 1~3부 예배시간 중, 컨퍼런스룸

베델뉴스 편집위원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김경자 권사

■ 기 자: 강정훈 집사, 강은혜 집사, 권두경 집사, 김규현 집사, 김인경, 김유미 권사, 배민정 집사, 박정원 집사, 박혜성 권사, 안정선 권사, 이혜림 집사, 이소영 권사, 황수정 집사

■ 사진 기자: 박상근 장로, 최호경 집사, 차규양 장로

■ 번 역: Grace Yi 전도사

비전 주차장 3345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주차 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베델/갈릴리수양관 31600 El Cariso Trail, Lake Elsinore, CA 92530 ◆ 수양관전화번호(예약문의) (949) 943-9697 ◆ E-MAIL bgrcenter@hotmail.com

COLOSSIANS LECTURE (15)

Sunday Worship Sermon Note

Speaker: Rev. Bryan Kim

Supreme Jesus!

More Fun than Sin

(Colossians 3:5–9)

1. What do you find most fun these days?
2. Last week's sermon was "Seek for things above." Today we receive a message about "Put to death what is earthly." Write four main things to put to death. From Jesus' sermon on the mount, think about the attitude in handling sin. (v.5, Ref: Matt 5:29)
3. What do we learn from Joseph in overcoming sexual temptations? (Ref: Gen 39:6, 10-12)
4. Another sin that must be put to death is the 'sin of speech.' It lists various types. (vv.8-9)
To overcome this sin isn't just to put off the old self but to put on new self. Read the reference verses and share its wisdom. (Ref: Pr 26:18-22, Eph 4:25-29, Matt 13:44)
5. What is the most fun "all in all"? (v.11) Lets share the joy, happiness, and fun we enjoy in the Lord.

Apply to Life

English translations for
worship services via
Discord

■ **Song in Response:** You Are My All in All, Oh, the Best Friend to Have is Jesus (Hymn 86)